

하늘사랑

2017. June

6

www.kma.go.kr Vol. 432

정책 클로즈업

올여름 더위는 '더위체감지수'로
대비하세요!

열린마당

시간선택제의 이중생활

날씨+Story

지구온난화가 낳은
또 다른 아픔, 기후난민

2017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날씨 빅데이터,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다!

기상청은 공공데이터 활용과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다양한 분야 융합을 위하여
'2017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는 날씨가 빅데이터와 만나면
날씨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7.6.12(월) 9:00 ~ 2017.7.7(금) 18:00

공모내용 다양한 기상데이터를 타분야 데이터와 융합하여 분석한 결과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참가대상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단위 : 개인 또는 팀 (*팀 구성 시 3명 이내로 제한하며, 단체 법인명의 팀 참여 가능)

대회일정

참가신청	대회 설명회	공모작 제출	1차 예선심사	2차 본선심사
6.12(월) ~ 7.7(금)	6.15(목)	8.10(목)	8.17(목)	9.7(목)

* 대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대회 참가자 중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시상 내역

구분	팀수	상격	상금
최우수상	1	환경부장관	300만원
우수상	2	기상청장	100만원(팀당)
장려상	3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50만원(팀당)

* 시상 상격과 상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육성실 070-5003-5236(promotion@kmipa.or.kr)
- 홈페이지: <http://big.kma.go.kr/2017contest>

하늘사랑

2017 June Vol. 432

2017년 6월호(통권 432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7년 6월 12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대변인실 최의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올여름 더위는 '더위제감지수'로 대비하세요! · 02

기상인+

4차 산업혁명에 임하는 기상기후 전문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 04

포커스

스타트업 성장도우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06

KMA About

열린마당

청정바다 완도와 함께한 24일간의 여정 · 08

아재들의 문화체험, 추억의 7번 국도! · 10

항공기상의 시작과 끝, 국제민간항공기구(CAO) 회의 · 12

시간선택제의 이중생활 · 14

지진, 내 삶을 바꾸다 · 16

기타 동등, 여섯 줄 소리 하나 · 18

KMA 날씨 +

날씨 + Story 지구온난화가 낳은 또 다른 아픔, 기후난민 · 20

날씨 + Book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럴 때 있으시죠?" · 22

날씨 + Travel 우리 가족 3대! 파란만장 경주 여행기 · 24

날씨 + 연애 한여름의 소나기 같은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6 June



07



09



25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에서 제공받은 온열질환 환자자료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온열지수 추정식이다. 더위체감지수는 기온, 습도뿐 아니라 일사량과 기류가 반영된 온열지수 기반으로 개발되어 태양빛에 노출된 상태의 더위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 적합하다. 따라서 더위체감지수는 기온이 낮은 날에도 일사가 크거나 습도가 높아 폭염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날에 '경고' 단계 이상으로 나타나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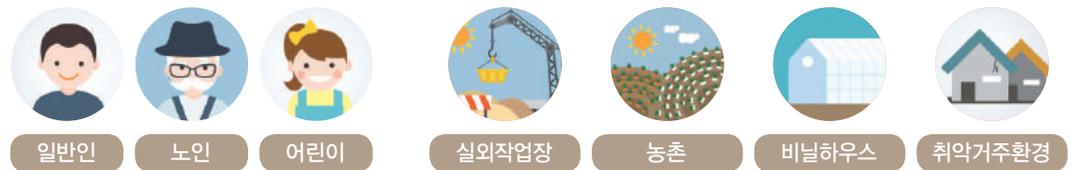
또한, 일부 기준지점과 폭염 취약환경에서의 시간대별 평균 기온차를 토대로 보정치를 다르게 반영하여 대상별(노인, 어린이 등), 환경별(농촌, 실외작업장 등)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더위체감지수는 국제표준기구(ISO)의 온열지수 노출 기준과 일본 환경성의 폭염 예보 기준을 토대로 '관심-주의-경고-위험-매우 위험'의 5단계로 구분했다.

‘더위체감지수’,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더위체감지수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상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한다. (기상청 홈페이지)날씨>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전국 읍면동 지점의 모레까지 더위 위험도 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예측하여 대상과 환경에 따른 대응요령과 함께 일 2회(06시, 18시) 제공한다.

단계	특수요령	대응요령
매우위험	30 이상	▶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음 ▶ 고온·습기감출을 중지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
위험	28 이상 30 미만	▶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음(35세 이상 고령자는 온열질환 발병 위험 현상) ▶ 고온(18°C이상) 또는 습기(80% 이상)는 야외 움직임을 중단 ▶ 농작업 시 30분 휴식, 휴식 후 체온 측정하여 수분섭취가 적절할지 확인 ▶ 1일 농작업 시간은 4시간 이내를 권고함
경고	25 이상 28 미만	▶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음(35세 이상 고령자는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현상) ▶ 어르신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해 주며 물(1리터)을 2시간당 1리터 이상 섭취하도록 권고함 ▶ 1일 농작업 시간은 4시간 이내를 권고함
주의	21 이상 25 미만	▶ 온열질환 발병 가능할 정도로 35°C 이상 고령자는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현상 ▶ 농작업 시 30분 휴식, 휴식 후 체온 측정하여 수분섭취가 적절할지 확인 ▶ 농작업 후 수분이나 찬물음료 섭취하기 권장. 오븐, 건조기 사용 금지
관심	21 미만	▶ 온열질환 발병 가능할 정도로 35°C 이상 고령자는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현상 ▶ 농작업 시 30분 휴식, 휴식 후 체온 측정하여 수분섭취가 적절할지 확인 ▶ 농작업 후 수분이나 찬물음료 섭취하기 권장. 오븐, 건조기 사용 금지

서비스 대상과 환경



2017년에 고도화되는 더위체감지수

2017년에는 최신 온열질환 보건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위체감지수의 온열질환 발생 예측성을 검증하고, 전국의 다양한 폭염 취약환경에서의 온열지수 관측을 통해 세분화된 대상과 환경에 대한 예측정보의 신뢰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개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에 따른 맞춤형 더위정보를 활용하여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에 임하는 기상기후 전문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릴레이경기에서 바톤 넘기기는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상기후 분야에서도 바톤 넘기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상기후공동체가 기후변화 교육홍보에 소홀히 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시급한 이슈임에도 우리 시민사회 인식도 부족하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기후불량국가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석탄은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파리기후변화 협정 발효와 9.12 지진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예측되면서 기상기후서비스업의 확대도 불가피하다. 다만 기술적 전문성, 나눔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기업가적 열정은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배양할 필요가 있다. 마침 은퇴한 기상기후전문인을 중심으로 단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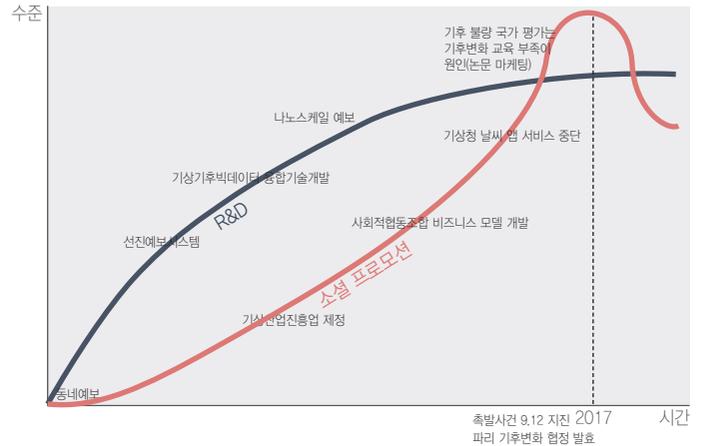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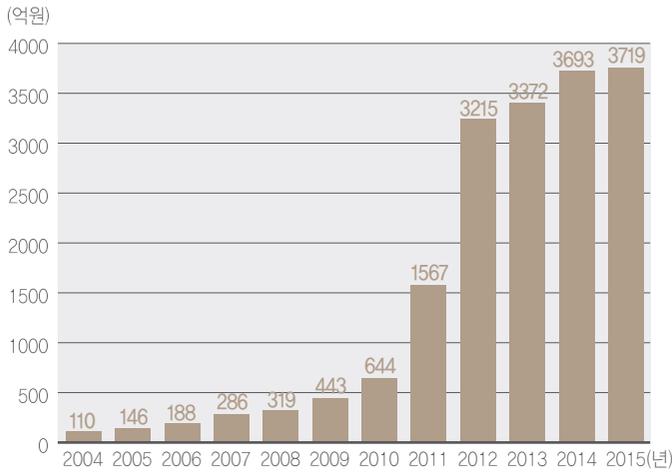
기상산업과 기상기후서비스

국제 기상학계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이 된다면, 기상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0년이 넘었고 2009년에는 기상산업진흥법까지 제정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기상산업 중 기상장비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기상선진국은 기상기후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라는데 왜 우리는 불과 6.2%일까?



오완탁
한국기상전문인협회장

기상 산업 총 매출액



기상산업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시작한 민간기상사업제도는 2003년에 8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5년 기준으로 3,693억 원이니 2만 불에서 기상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상산업은 기상장비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기상기후서비스업으로 진화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더불어 기상산업시장 규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상청은 작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기상기후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기상산업실태조사를 통계청 승인을 받아 기상산업 통계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기후공동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상기후서비스 약 700여 점을 대폭 민간에게 이양하고 현장서비스의 중추인 기상대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시장에 매우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민간으로 이양한 서비스가 시장 활성화보다는 지역민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중단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너무 성급한 지적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기상기후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가 날씨라는 사

실이 이 상황을 증명한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기상기후정보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공급자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미래의 기상기후서비스

기술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구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선진예보시스템은 대한민국지식대상을 받을 만큼 마케팅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환경 속의 기상기후공동체는 기상산업으로 쓰고 기상기후산업으로 이해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인식하는 기상산업은 기후 분야를 제외한 날씨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주체가 정부와 시장으로만 설정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기상기후서비스, 기상기후빅데이터 융합기술 적용 등 공공문제 등은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을 활용한다면 향후 공공기상기후서비스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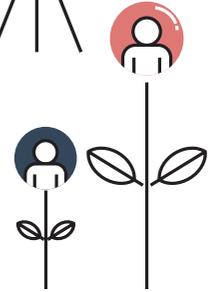
스타트업 성장도우미,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육성실

성공의 첫걸음,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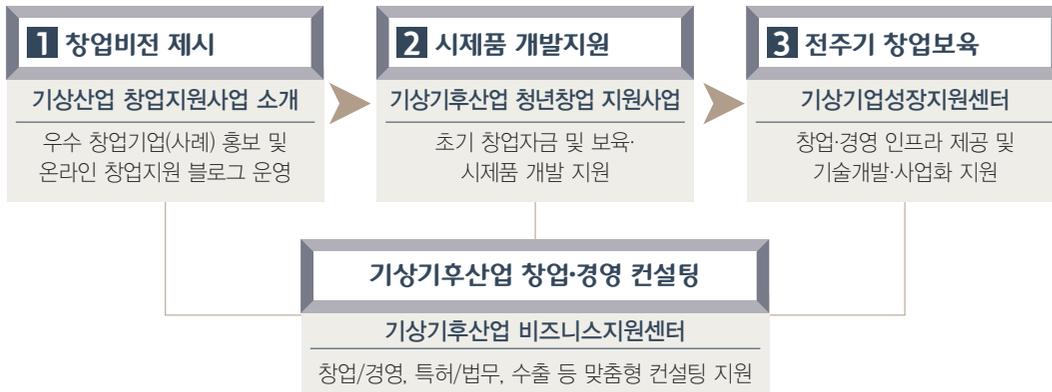
기상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창업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개소해 창업, 경영, 금융, 수출 등 기상기업 스타트업 성공에 힘써왔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의 목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 및 자금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노하우를 배우고,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시제품 개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의 노하우가 없는 기상기업에게는 경영·회계·세무·법률 및 기술개발 활용에 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획에서 사업화·마케팅·경영컨설팅·투자지원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의 목표다.

기상기후산업 창업·성장 지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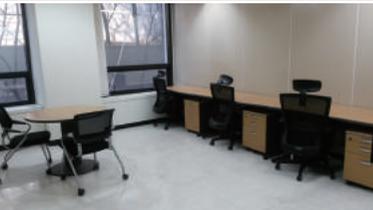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통해 기상기업성장 속속!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기업은 총 19개사로 입주 전 대비 평균 매출액 69.5% 증가, 창업 4건, 사업화 65건 등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해썬을 꼽는다. 올해 5년 차를 맞은 ㈜해썬은 기상기후 빅데이터와 IT를 융합한 국내 유일 태

양광 전문기업이다. ㈜해썬은 기상청의 방대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기상청 기상사업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해썬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비즈니스공간과 공용시설 등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성장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안정적으로 스타트업업을 하였고, 기업성장지원센터 비즈니스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개발 교육을 지원받아 온라인서비스를 개선하여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 첫째 90여 건이었던 서비스 신청 수가 이듬해에 2배로 급증하는 등 자립에 성공했다. 현재 태양광 대여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혀 가구 수 기준으로 이 분야의 업계 1위로 급성장하였다. 국내 1호 공동주택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포스코 기술투자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유지하는 등 2015년~2017년 3년 연속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되며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를 달렸다. 이렇게 ㈜해썬은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첫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사무-비즈니스 공간 인프라 및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에 이르는 맞춤형 성장 지원을 발판으로 총 3개의 특허출원과 GS인증(1등급) 획득, 72억의 매출을 올리고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 1년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사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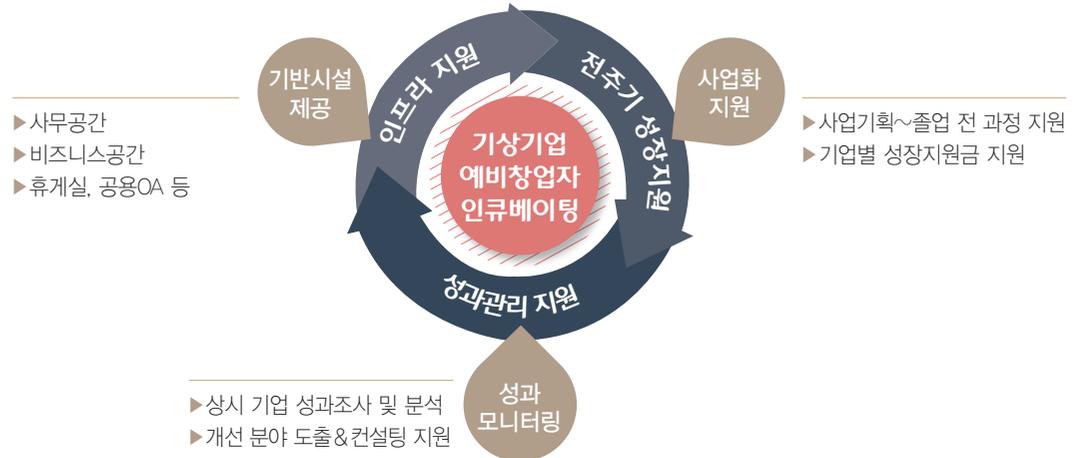
회의공간



OA실



휴게실



창업성공,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준비하세요!

'기상기후 청년창업 지원 사업' 우수팀으로 선정된 26팀 중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창업사례로는 ㈜B.U.S 크리에이티브의 날씨정보 앱 '호우호우'가 있다. 기상청의 복잡한 수치와 픽토그램을 귀여운 캐릭터와 친근한 말투로 바꿔 쉽고 재미있게 날씨정보를 전달하는 소셜 공감 날씨정보 앱을 만들어 창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어제·오늘·내일 날씨 비교 정보, 위험기상 상황별 특보, 황사 및 미세먼지 예보를 비롯해 아침·저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날씨를 알려주는 푸시알람 기능 등 기존 앱과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아펙시가 음원 분야를 중심으로 레스토랑, 커피숍 등에 '날씨에 따른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로 창업에 성공하였고, ㈜설록컴퍼니는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날씨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

성공은 쉽지 않다. 그러나 '창업지원-성장지원-스타트업육성'으로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있는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와 함께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기상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



청정바다 완도와 함께한 24일간의 여정

올해 봄, 전라남도 완도는 참으로 뜨거웠다. 완도를 뜨겁게 달군 것은 태양이 아닌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이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24일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는 무려 9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오래전부터 완도는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가 풍부하여 깨끗한 바다와 품질 좋은 전복으로 유명하였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구환경, 수산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조류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의 가치

이외에도 해조류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해조류가 지구와 해양 환경을 살리는 바다의 숲이기 때문이다. 해조류는 수중의 유기물을 흡수하여 해양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탄소 절감을 위한 미래 대체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자원인 해조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해양 오염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갯녹음' 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정해 바다숲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중한 해조류와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광주지방기상청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를 알리고 생활 속의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참가하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득 안고 완도로 향했다. 광주에서 완도까지 가는 길 곳곳에 설치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안내표지를 보니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온 박람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점차 실감 나기 시작했다. 박람회가 펼쳐질 완도 해변공원에 도착하니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 나도 서둘러 출입증을 발급받고 광주지방기상청 체험 부스로 향했다.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보다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사진을 설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수상가옥'과 '북극곰과 빙하' 만들기 교재를 정리한 후 우리 청의 마스코트 '기상이'까지 제자리를 찾아주니 앞으로 24일간 함께할 멋진 공간이 완성되었다.



임수정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서 알린 기후변화

우리 부스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기상기후사진이었다. 신비로운 쌍무지개와 웅장한 렌즈구름에 감탄하여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감상하던 관람객들은 뒤로 이어지는 폭설과 가뭄, 황사 사진을 보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와 환경 변화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다짐하며 소망나무에 잎사귀를 매달아 주었다. 이런 고마운 마음이 모여서 박람회가 끝날 때에는 더 이상 잎사귀를 매달 빈 가지가 없을 만큼 나무가 빼곡하게 채워졌다.

아이들은 역시나 만들기 교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북극곰과 빙하'를 만드는 시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답을 척척 잘하기에 학교에서 벌써 기후변화를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무한도전에서 봤어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던 것이 인상 깊게 남아서 북극곰을 위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에어컨도 자주 틀지 않겠다는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이번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는 더 이상 먼 북극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바다에서도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종이 증가하고 갯녹음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바다, 소중한 수산자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후변화 공감 체험부스 운영



출처: 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팀 제공





아재들의 문화체험, 추억의 7번 국도!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한 내가 막내라니……. 직원 간 소통강화와 창의적 업무역량 배양을 위해 대전청에서 매년 시행해 온 ‘지역 문화체험’에 올해 상반기 대상으로 내가 포함되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같이 문화체험을 같이하게 될 분들이 기상청 입사 34년 차 이종제 계장님과 29년 차 홍순환 계장님이었다!



정지현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행의 시작

기왕이면 몸도 맘도 편하게 기차를 타고 맛집으로 소개된 지역식당을 두루두루 섭렵해보고 싶었지만, 이계장님은 기상청 입사 전에 포항-삼척 구간 7번 국도 공사현장에서 일하셨고, 홍계장님은 처음 발령지가 강릉이었던 인연으로 추억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더욱이 제일 연장자이신 이계장님이 손수 운전하기를 자처하시고, 40년 만에 가시겠다는데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17일 월요일 첫날, 대전에서 출발해서 울진 영덕IC를 통과해서 평해읍에서 순대국밥을 먹고 성류굴로 향했다.

성류굴과 망양정

바로 옆에 푸른 물결의 왕피천이 흐르는 성류굴은 바위 형태 조형물로 꾸며진 입구부터 남다른 풍경을 자아냈다. 잔뜩 허리를 굽히고, 머리에 쓴 안전모가 동굴 천장과 부딪혀 딱딱 소리를 내며 들어간 천연기념물 제155호 석회동굴에는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생성된 중유석과 석순의 기묘한 모습이 신비로웠다. 아마도 지구의 탄생과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돼서인가.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천장과 바닥이 맞닿아 생긴 석주가 외부의 힘을 받아 생긴 ‘갈라진 석주(통일기원탑)’이었는데, 학자들은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막상 지진의 여파라는 안내문을 보니 요새 대두되고 있는 지진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다.

이어서 관동팔경 중 하나인 망양정(望洋亭)에 올라 넓은 동해를 바라보니 조선 숙종이 관동팔경 중 이곳 경치가 최고라 하여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했다는 안내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높은 언덕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니 양말은 물론 바지까지 젖어 드는데 이종제 계장님이 한 말씀 하신다. “젖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늙어서는 몸이 아파서 놀러 못 다닌다고”

어제와는 다른 설레는 풍경

18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이 비추니 검게 탈 피부가 걱정되었지만, 7번 국도를 따라 펼쳐진 어제와는 다른 바다 풍경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강릉으로 올라가는 길에 전국 최장거리의 해안단구길로 힐링 트레킹 공간으로 조성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들렀는데 5월까지 낙석방지공사를 하는 바람에 출입이 통제되어 멀찍이 보이는 부채길을 배경 삼아 사진만 찍는 아쉬움을 남겼다.

두 분이 근무했던 강원지방기상청 옛 부지에서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다. 건물은 간데없고 차들만 그득한 무료주차장이 되었지만, 직원들이 직접 파서 만들었다는 1평 남짓의 연못과 이계장님의 딸이 뛰어놀았다는 관측노장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2008년도에 세워진 ‘근대 기상관측 기념 표지석’을 가운데 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강릉중앙시장을 구경했다. 갖가지 상품과 사람들 구경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전국맛집 TOP 1000’에 선정되었다는 칼국수집에서 현장체험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나는 한 구절

강릉을 뒤로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봄 날씨가 참 조석지변(朝夕之變)이다. 문득 생각나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올라 적어본다.

‘라일락은 연보라색이라 비에 젖으면 금방 지워질 듯한 여린 빛이다. 그런데도 제 빛깔을 잃지 않고 있다. 세월의 빗발에 젖으며 나는 내 빛깔과 향기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던가.’

— 도종환, 에세이집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중에서 —

우리도 이처럼 세월의 빗발에 젖으며 빛깔과 향기를 얼마나 잃어버렸을까? 이번 여행을 통해 추억을 되새기며, 그때의 빛깔과 향기를 기억해 볼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





항공기상의 시작과 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

주말 아침, 넓디넓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는 해외여행을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객으로 가득하다. 이곳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몇 시간 후에는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의심치 않는다. 행복한 얼굴, 설레는 마음, 온몸 가득히 기대를 품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려 한다.

내가 방콕을 방문한 이유

만약 동남아시아 태국 방콕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인가? 태국은 타이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허벌 마사지를 비롯한 다양한 마사지 슌이 우리나라 치킨집 마냥 한 건물 건너 하나씩 있고, 독특한 향신료로 향은 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착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으며, 아기 손 마냥 부드러운 '짐통스 실크수수건'이나 슈퍼주니어의 규현의 얼굴이 박힌 김과자 '마시타' 등을 쇼핑하거나, 요즘 뜨는 골프투어를 즐길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국가와 인종이 이곳을 찾지만 방콕을 찾은 이유는 비슷할 것이다.

하나, 내가 방콕에 방문한 목적은 대부분의 여행객과 달랐다. 방콕 짜뚜짜 시장 인근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열리는 제15차 기상정보교환 실무회의와 제7차 기상서비스 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상태와 계획에 관한 안건발표를 위해서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실무회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시설 및 운영, 항공기, 승무원, 항로 및 항법, 기술, 환경 등의 항공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항공비행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다. 이를 위해 체약국들은 국제민간항공 부속서에 반영된 국제표준과 권고사항을 지키고 이행하며,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입안, 검토, 토의한다. 그리고 올봄 3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태국 방콕에서는 기상 관련 실무회의들이 열렸고, 나는 그곳에 있었다.



이민지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매일 아침 8시마다 숙소 앞 쑤콤똥 지하철역에서는 회의 자료가 든 노트북을 넣은 가방과 회의실의 어마무시한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지켜줄 두툼한 카디건을 손에 쥐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각국 대



표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다들 처음 만나는 얼굴이지만, 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외향과 분위기를 풍기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숙소 밖으로 나가면 긴장에 굳어지는 얼굴을 펴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강한 인상을 남긴 회의 진행

회의는 바쁘게 진행되었다. 간혹 진행이 늦어지면 호주에서 온 서기와 의장님은 티타임 마저 생략한 채 쭉쭉쭉 진도를 나가며, 약속한 회의일정을 맞추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고,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빈틈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또 영어로 진행되고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과 효율 그리고 발전'이라는 서로 같은 목적에서 시작하고 다 같이 나아가지만, 나라마다의 억양과 발음으로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활동은 나에게 강한 펀치를 날렸다.

이곳에 온 국가들의 목적은 비행기의 안전과 경제적인 효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며 교환하는 데에 있었다. 또한, 이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여, 그 결과물을 기록하고 그룹의 의무사항, 지침 그리고 목표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 회의 만남에는 올해의 약속들을 지킨 증거를 보여준다. 지난봄에 그러했듯이, 올해 봄도, 내년 봄도 그러할 것이다.

특별한 태국, 나의 목표를 엿보다

이제 나에게 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게 되었다. 앞으로의 목표 지점이 될 것이고, 꿈을 가지게 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나의 경험에서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을 더해야 우리나라 대표들과 다른 나라 대표들의 경험에 미치지겠지만, 나는 내가 되어야 할 목표를 태국에서 엿보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



시간선택제의 이중생활

지난해 10월 10일은 대구기상지청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 하면서 사무실 안과 사무실 밖의 생활을 병행한 지 어느덧 7개월 차! 근무 시간이 전일제 공무원들의 절반으로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다르다 보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쉬는 날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시간선택제 근무 중인 그녀들의 이중생활을 파헤쳐 보도록 하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 취지는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상승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이고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복리 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하나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기존의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소정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너는 내 운명, 1+1

첫 출근 날 사무실 티 테이블에서 서로를 맞이했을 때 어색함은 잠시. 우리는 운명(?)답게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지금은 서로를 지칭할 때 '내 반쪽', '내 짝궁' 등 낮 뜨거운 애칭을 사용하고 있다. 주변 분들은 우리에게 1+1, 둘 중 누가 덤이냐고 놀리기도 하고 각각 한 사람 그 이상의 인재라는 과분한 칭찬으로 격려해 주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함께 업무를 진행해 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는 주 20시간의 업무시간을 2.5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한 주 동안 수요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지혜 주임, 그 이후에는 윤소정 주임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한주의 절반은 각각 부재중이다 보니 사무실 주요 업무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전달 사항을 매일 기록하기도 하고 종종 전화 연락을 통해서 인수인계하며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지혜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사무실 안과 밖의 이중생활

우리가 맡은 주 업무는 월 1회 생산되는 지역별 맞춤 정보(수문기상정보, 가뭄(단비)정보)와 매월 초순에 PC 영상회의를 통해 기상기후정보 브리핑을 주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맞춤정보를 카드



뉴스로도 작성하여 SNS로 공유하고 있고 그 외 기후변화 퀴즈 이벤트와 대구경북 기상기후정보집 생산 업무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업무들을 잘 숙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었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셔서, 빨리 업무를 익힐 수 있었다. 소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업무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적게 일하는 만큼 월급이 적은 것은 시간선택제의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점이나 개인 시간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는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각자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가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지혜 주임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면서 미술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앞으로 공부할 계획이 있으며, 최근 마라톤에도 취미가 생겨 내년에는 장거리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소정 주임은 예전부터 목표로 했던 바리스타 공부와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했다. 또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의 인문학 강연도 이것저것 찾아 듣고 있다.

그녀들의 라이프, 빛이 중헌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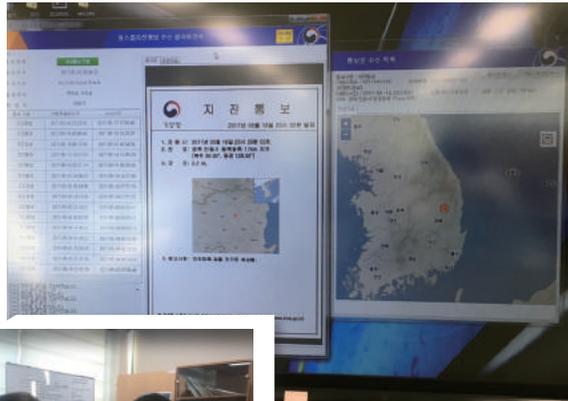
요즘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남들에 비해 개인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자칫 나태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함을 알고, 비교적 적은 월급에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결혼하거나 검직을 하는 등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사무실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출근해서는 치열하게 일하고 사무실 밖에서는 열정적으로 인생을 즐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진, 내 삶을 바꾸다

과학교사로 꿈을 꾸다 지진에 대한 수업을 듣고 흥미를 느껴 선택한 전공이었다. 부산에 연고를 둔 나는 지역 내에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시작하게 된 지진이라는 전공과는 무관한 플랜트 건설 회사에서의 일이 익숙해 질 때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이 길게 이어지던 시기였다. ‘쿠궁’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송근영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



지진으로 깨닫다

순간적으로 이건 지진이다! 뛰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잦아들자마자 맨몸으로 휴대전화만 들고 뛰쳐나왔다. 휴대전화로 가능한 한 모든 사이트에 접속해 봤지만, 대부분의 사이트가 먹통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었다. 실시간 뉴스 역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영되고 있었다. 예전에 이용했던 기억을 더듬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웹사이트를 뒤져보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뛰쳐나오게 했던 것은 지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격이었고 한편으로 답답했다. 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지진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전공자일 때의 마음가짐과 전혀 무관한 일반인의 마음은 차원이 달랐다. 부모님은 영문을 몰라 걱정만 하고 있었다. 지진을 배우지 않았냐고 아는 것이 없냐고 내게 물었다.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진으로 집에서 밖으로 맨몸으로 뛰쳐나온 사람들과 부모님을 보면서 내 고민은 끝이 났다.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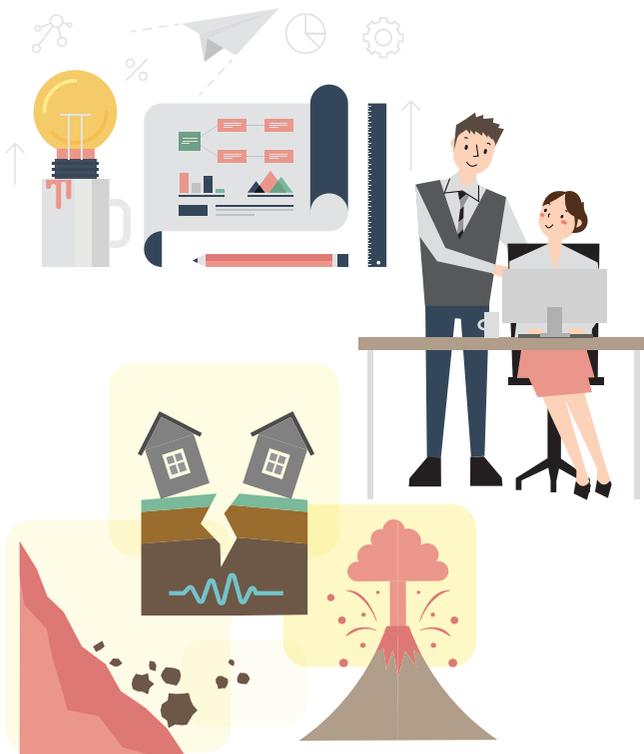
다시 시작하다

9.12지진이 발생 후 약 6개월, 이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했다. 흥미 있고 관심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설레는 기분을 더욱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뒤늦은 도전으로 주위의 반대를 물고 왔고 이로 인해 혼자서 조용히 혹시나 지진 관련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까 하고 매일 기상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있었다. 드디어 채용 소식이다! 부산지방기상청 지진 분야 연구원 채용에 서류를 제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면접을 보고 드디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다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에 들어와서 지진 업무를 맡은 지 약 한 달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신입이다. 미숙함에 많은 질문들을 쏟아 내더라도 관측과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차근 차근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다. 작년 9.12지진 이후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진 조기 관측망 구축을 위한 준비는 이미 대부분 마쳐져 있었다. 관측망 하나하나의 준비과정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 교육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마지않는다. 기상청에서의 한 달은 지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과정과 업무를 지나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일반인으로서 가졌던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불안함이 지나가고 익숙함이 스며드는 시기 나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지진 업무를 맡으며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뒤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일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타 뚱뚱, 여섯 줄 소리 하나

눈을 뜨자마자 기타를 잡는다. 피크는 발이라도 달린 듯 항상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에 잘 찾아야 한다.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것은 기타의 조율 상태. 각기 다른 6개의 개방 현 음을 맞추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는 한참 동안 기타를 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기타를 치고 밥을 먹고, 그러다가 지치면 잔다. 꿈속에서는 기타가 뚱뚱거린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기타는 항상 내 머리맡에 있다. 이것은 나의 학창시절의 일상이었다.



기타 이야기

기타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TV에서 이름 모를 외국 가수가 전자기타를 치는 것을 보고 너무 멋있다는 흥한 이유로 기타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자기타를 샀다. 그러나 기타의 실체를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너무 어려워서 독학으로는 어떻게 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조금만 연습해도 왼쪽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파졌다. 이런저런 핑계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기타를 한동안 멀리하게 되었다.

다시 기타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실기시험을 위해 구입한 클래식 기타였다. 클래식 기타 입문 곡으로 잘 알려진 로망스를 열심히 연습해서 음악 실기시험을 봤지만, 초보자의 형편 없는 실력으로 겨우겨우 완주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음악 선생님께서 첫사랑이 쳐줬었던 곡이라고 후하게 90점을 주셨다(비밀이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단과대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서 전자기타를 주로 쳤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쯤에는 통기타의 나무 울림 소리에 매료되어 통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공연 이야기

나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기타를 줄곧 혼자서 연습해왔다. 그 때문인지 실력이 가능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보여줄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난생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클럽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무대를 망칠 뻔했었다. 혼자서 연습할 때와는 다르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매



오수민
국가기상위성센터 차세대위성개발팀

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 뒤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젊은 혈기에 무대공연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정말 많이 했고 팀명을 로고로 한 배지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 만들었던 자작곡들을 개인 소장용 CD에 담아서 당시에 음악을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피크벌레 이야기

기타를 치는 방법은 피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맨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주로 피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피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항상 찾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발이 달린 피크벌레들은 골치덩이들이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피크를 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낙원상가에 가곤했다. 낙원상가는 보통 오전 9시부터 문을 여는데, 나는 항상 8시 30분쯤에 도착해서 문 열리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여기저기 널려있는 다양한 기타들을 구경하거나, 상가 주인이 기타 치는 것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진짜로 피크 하나만 사고 집에 돌아갔다. 집에 돌아 가면 어느새 나타나 있는 피크벌레 때문에 허탈했던 적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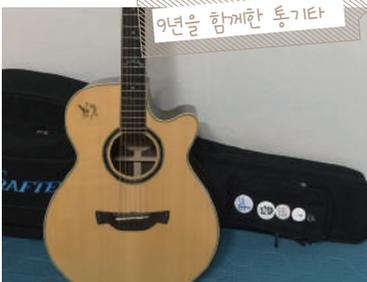
위성센터 밴드부 이야기

많은 시간을 음악과 함께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내가 어느덧 직장인이 되어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입사한지도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훌쩍 지났다. 입사 후 제일 놀란 것은 센터에도 밴드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음악과는 거리가 먼 생활할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밴드부에 가입해서 센터 내에서도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늘 감사한다. 위성센터의 밴드부가 더욱더 활발해져서 기상청의 많은 분이 기타와 여러 악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앨범과 배지, 그리고 피크벌레들



9년을 함께한 통기타



차장님이 위성센터에 오셨을 때 직접 찍어주신 사진



지구온난화가 낳은 또 다른 아픔, 기후난민

“(영화) 촬영한 2015년은 가장 지구온난화가 심했던 해다. 인류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을 받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 소감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디카프리오의 수상소감처럼, 전 지구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사막화, 이상 기후 발생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기후난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영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점점 늘어나는 기후난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이 2017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21세기 들어 17번 중 16번이나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기후 과학자인 개빈 슈미트는 “지구 기온 상승의 80~90%는 장기적인 경향이며, 10% 정도만 엘니뇨와 같은 자연적인 가변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경향’이란 인간의 석유, 석탄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16년 10월에 발표된 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의 ‘기후 관련 재난의 인간 비용 1995~201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6,457건의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약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다치거나 생활터전을 잃은 사람도 41억 명에 달합니다.

기후난민이란?

기후난민이란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태평양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 투발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섬 9개 중 2개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2~3년 사이에 해변 1m가 씻겨나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염분이 땅속에 스며들어 농작물은 시들어버리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산호초가 죽고 물고기 개체 수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하루 아침에 집이 물에 잠겨버리기도 합니다. 매년 높아져 가는 해수면 때문에 더욱 많은 양의 바닷물이 섬으로 유입되는데요, 전체 길이 12km에 면적이 25.6km²인 투발루에서는 더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투발루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섬나라들도 이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약 90%가 농민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 또한 기온의 변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수확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

이처럼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업지대는 빠르게 사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열기에 물이 부족해져 농작물은 물론이고 방목 가축들을 키우기도 점점 힘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점점 더 생활이 힘들어지고,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럽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아프리카 이민자 중 70% 정도가 '빈곤과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아프리카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기후난민

이 외에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가 어는 시기가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는 알래스카 시시마레프 주민들, 히말라야 산맥에서 녹은 빙하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여 가족들을 잃은 인도 케다르나스 지역 주민들 등. 매년 평균 2,15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식량 전쟁으로 이어져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위기 시각을 늦추고 기후난민을 고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방법에는 전기나 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 분리수거와 재활용,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지구의 날, 환경의 날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기후난민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럴 때 있으시죠?”

저자 김제동 | 나무의마음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순간,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의 약한 모습을 들키면 모두 실망할 것만 같을 때, 내 주위에 어떤 누군가가 ‘괜찮아, 나도 그래.’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기상청에 입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이제 혼자가 아닌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다 보니,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예전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이제 그 순위는 저 뒤로 밀려난 지금, 외롭고 지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제동의 『그럴 때 있으시죠?』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공감은 물론이고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소개한다.

마흔이 넘었지만, 사실 저도 늘 불안하고 계속 흔들려요. 누군가 저에게 “너 왜 그러고 다니냐?”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충고하면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저를 휘두르도록 놔두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무 살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 찾은 청춘들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이제 스무 살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나도 20대를 되돌아보면, 막막하고 힘들었던 때가 훨씬 많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었다. 서른이 넘은 지금도 아직 많은 일이 서툴고 사소한 결정 하나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스무 살에는 서른이면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해결하고 상처도 훌훌 털어버리는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른네 살의 나는 20대에는 하지 않았던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아마 마흔이 되었을 땐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고민을 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김주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살면서 나만 뒤쳐진 것 같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질책할 때가 많죠. “삶의 속도를 더 높여라.” 하면서 막 다그치기도 하고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도 조금이라도 쉬면 뭔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자꾸 해야 할 것 같고, 쫓기는 느낌이 들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껏 쉬시고 마음껏 노세요. 그런다고 어디 잘못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쉬고 우리 조금만 더 놀아봅시다. 그러다 보면 일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나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는 거 같았다. 남들 다하는 직장생활과 육아에 나만 이렇게 우는 소리 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내기 힘든 일상에서 점점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만 같은 불안함이 쌓이고 쌓여갈 즈음, ‘지금도 잘하고 있다. 쉬어가도 괜찮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기다려주자’라고 말해주는 작가의 글이 눈물 나게 위로가 되었다.

첫째 매형은 김제동에게 처음으로 썰매를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셨는데 조선소에서 일하시다 36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한다.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사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편하게 살 수 있어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참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기도 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의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안타깝기도 하다. 토크쇼에서 이야기하듯 쓰인 이 책을 읽고 나면, 각박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십 대도,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워킹맘에게도,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도 작은 공감의 말 한마디에 크게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우리 가족 3대! 파란만장 경주 여행기

‘아, 좁아.’ 승합차 한 대에 10명이 타다니. 다리도 펼 수 없고, 타고 내릴 때 적어도 5분씩은 걸릴 것 같았다. 경주 여행은 그렇게 불만을 안은 채로 출발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황서현
강릉 울곡중학교 2학년(강원지방기상청 황수남 주무관 자녀)



3대가 함께 한 경주여행

4시간 정도 달려 경주에 도착했다. 나로서는 3년 만에 와 보는 경주라서 반갑고 설레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황룡사지였다. 전에 방문해 보았을 때는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옆에 위치한 황룡사 박물관에 가서 복원모형도 보고 설명도 들으니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황룡사지를 둘러본 후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을 구경하러 갔다. 분황사는 이름처럼 산뜻한 봄 같은 느낌을 주었고, 모전석탑이 주는 안정감에 내 마음도 차분해지는 듯했다. 저녁에 안압지와 첨성대의 예쁜 야경을 보려고 했지만, 연휴라 관광객이 많아서 여유 있는 야경 관람이 힘들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날씨도 최고, 기분도 최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는 둘째 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을 먹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다. 오늘은 가장 먼저 경주를 대표하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으로 갔다. 비교적 시원한 아침에 간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보통 불국사와 석굴암을 생각하면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부터 들지만, 직접 가서 꽃바람 흠날리는 불국사의 전경을 보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리와 건물들이 감동을 준다. 이어서 방문한 석굴암 역시 마찬가지였다. 석굴암 본존불이 짓고 있는 변함없는 인자한 미소는 언제나 예술이다. 무엇이든 소원을 빌면 이루어줄 것만 같아서 나도 내 소원을 살짝 빌고 왔다. 다음으로 안압지와 첨성대 일대를 돌아보았다. 자전거를 타고 이 주위를 돌아 보니 날씨도 최고, 기분도 최고를 찍었다. 선선한 바람과 마주하며 여유 있게 유적지를 다니니까 비록 다리가 조금 아프기도 했지만 남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분황사 모전석탑 앞에서



무열왕릉



불국사에서

첨성대와 천마총으로

점심으로 교리김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쉬움을 남긴 채 자전거 투어를 계속했다. 어제 다 보지 못한 첨성대부터 가 보았다. 첨성대에서 나는 금속 빛이 첨성대를 감싸는 것 같이 참 예뻐다. 주변에 길들이 구석구석 나 있어서 길을 따라 향교를 지나 안압지에 들렀다. 향교는 3년 전과 변함이 없었다. 마루에 앉아 시원하게 바람을 쐬었는데 이곳이 지상낙원인가 싶었다. 그리고 안압지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뽐냈다. 관희왕들의 휴식터가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천마총에 들렀다. 역사 시험문제에 나왔던 천마총의 천마도도 보고, 무덤의 내부 구조도 실제로 보니 신기했다. 시험에 나왔던 곳이라 동생에게 직접 설명해 줄 것이 많아서 더 재미도 있었다.

마지막 코스, 무열왕릉과 선덕여왕릉

벌써 셋째 날이 되었다. 마지막 코스는 무열왕릉과 선덕여왕릉이었다. 무열왕릉은 전에 와봤을 때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진골 귀족 최초로 왕위에 오른 무열왕릉이 왠지 더 멋있어 보였다. 사실 난 선덕여왕릉에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선덕여왕을 가장 좋아한다. 그 선덕여왕릉에 처음 가본 소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감동이었다.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냈던 선덕여왕의 지혜로움과 강인함이 고스란히 내게 전달되어왔다.

3대가 함께해 더 많은 추억을 쌓다

선덕대왕릉을 방문하고 교리김밥을 결국 먹음으로써 2박 3일간 다채로웠던 우리 식구의 경주 여행이 끝을 맺었다.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친척 동생들까지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다. 처음에는 좁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기뻛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자주 경주를 방문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다. 신록이 푸르른 5월, 경주를 방문하여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내 머릿속에서 컬러풀했던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

한여름의 소나기 같은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혹은 그 누군가가 자리한 풍경을 떠올리면 ‘어쩌면’이라는 말을 생각하곤 했다. 그것은 나의 내밀한 어떤 곳에 놓여있어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분명했다. 그래서 ‘어쩌면’이라는 말을 내뱉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사실 그것의 결말은 그때부터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이옥수
독립잡지 트럼폴린 편집장

올해의 휴가는 딱 일주일. 팀원들과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 나는 초여름으로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던 친구가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혼자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삼 일째가 되던 날 알았다. 사흘 동안, 한 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다. 크고 낮은 건물들 사이로 차들이 흐르듯 움직였고 불쑥 외롭다는 생각이 든 찰나, 여행을 함께 오지 못해 미안했는지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대만 여행 중인 사람들 SNS 채팅방 링크야. 한 번 들어가봐. 일정 맞으면 누군가와 같이 다녀도 좋지 않을까?”

선명한 파란색의 링크를 눌렀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채팅방이었다. 이미 대만으로 여행을 온 사람도 있었고, 며칠 내에 여행을 올 사람도 있었다. 누구나 대화가 가능했지만,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여행 일자와 애칭이 이름 대신 자리하고 있었고, 프로필 사진을 올려도 개인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여행이 끝난 몇 명이 채팅방을 나갔고, 여행을 앞둔 몇 명이 더 들어왔다. 내일 단수이에 같이 갈 사람을 찾기도 했고, 오늘 다녀온 발리 일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리고 불쑥 한 사람이 말했다.

“저 지금 시먼역이에요. 오늘 비가 와서 미라이 관람차를 못 타는 바람에 저녁 일정이 없네요. 혹시 근처에 계신 분, 술 한잔할까요?”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알게 된 사람과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특정한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다 만나는 일은 내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저요.”

라는 두 글자를.

우리는 30분 뒤에 시면역에서 만나자는 대화를 나누었고, 아직 대만에 오지 않은 사람들과 지금 다른 일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장난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시면역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거짓말처럼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분명한 그였다.

내 인사에 환한 미소를 보내던 그 순간이, 서로의 잔이 비는 것이 무섭게 술을 따라주며 웃던 순간이 영원 같았다. 그동안 다녀온 타이베이 101타워의 전망대, 중국풍의 정원인 임가화원,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용산사, 대만 초대총통인 장제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중정기념당까지 일정이 같았다.

그는 우리가 그 모든 곳에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고 했다. 특별한 순간이라던가 경이로운 경험이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불확실한 감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어렸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건 한여름의 소나기 같은 거예요. 아주 국지적이고 짧은 순간이죠. 소나기가 아니라면 어쩌면 내일도 어느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나는 당분간은 그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 어쩌면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금방 지나갈지도 모를 사람과 풍경이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언론인 기상강좌 개최(5월 10일)

출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상과학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기상강좌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1 편집단



제69차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회(EC) 참석 (5월 10~17일)

남재철 차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9차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회(EC)에 참석해 재해위험경감, 기후변화대응, 기상 분야 민·관 파트너십 등을 협의했다.



4차 산업혁명 이해 과정 교육 개최(5월 10일)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기상기후 업무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자 '4차 산업혁명 과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사례학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상반기 전국 예보관 회의 개최(5월 1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약 80명이 참석해 '2017년 상반기 전국 예보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방재기간에 대비하여 지역별 예보사례 분석 및 방재대책 등을 공유했다.

Photo News



SNS 기본 지식 및 활용 교육 개최(5월 15일)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SNS 기본 지식 및 활용 교육'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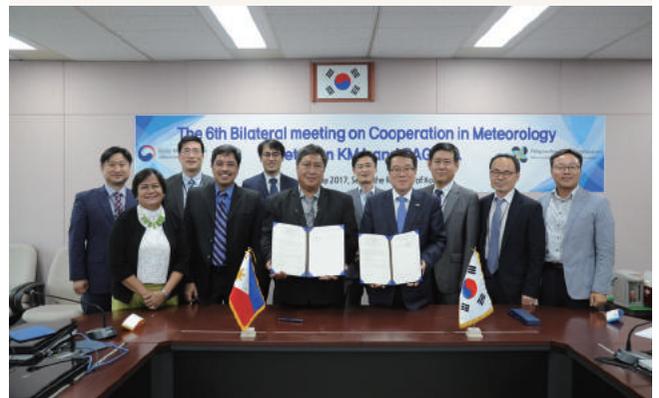
여름철 기상전망 발표(5월 23일)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시행했다. 기온은 6월에는 평년보다 높겠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탐방 개최(5월 18일~19일)

기상청 출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기상정책 현장 탐방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탐방에서는 보성표준기상관측소의 표준관측환경 및 기상1호를 활용한 입체적 기상관측 현장 소개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제6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개최(5월 23일)

기상청 차장 및 필리핀 기상청 공학기술 서비스국 국장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하여 제6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리안 위성 등 5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6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새로운 독자 참여코너를 신설합니다.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당신만의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6월호 제시어는 <소통>입니다.

예시) 소통: 상대의 요구에 반응하여 의견을 듣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기후변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원주민 ② 인디언 ③ 소수족 ④ 기후난민

1. ③ 날씨터치
2. ② 룬다

유재범(서울) 양승두(고양)
강영숙(인천) 이갑수(장성)
최남이(부산)

2.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무원은?

- ① 통상 공무원 ② 소규모 공무원 ③ 시간선택제 공무원 ④ 요일제 공무원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휴직연장	'17. 5. 1.	기상청(해외동반휴직 중)	기상사무관	이소영	
발령	'17. 5. 15.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강현석
			기후연구과	해양수산사무관	류동균
				기상연구관	이종호
			지구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	강기룡
파견 복귀	'17. 5. 27.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변영화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김강하
				창조행정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시끌벅적 하늘사랑

유재범 서울

‘기상과학관에서 온 가족 황사 대피작전’ 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기상과학관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기상과 기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과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전시관의 본연의 기능에 더 나아가 실제 우리 삶에 미치는 기상기후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나가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현장체험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잘 각인시켜준 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점점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날씨, IT 융합시대에 걸맞은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가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앞으로도 기상청에서 많은 역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양승두 고양

모든 내용이 유익했지만 그중 봄철 황사에 필수인 황사마스크, 알고 사용하자 편을 읽고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마스크를 사용할 때 아무거나 착용하곤 했는데 황사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이렇게 다양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먼 재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인증된 황사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등등 또한, 황사 마스크 사용 시 유의사항과 황사 발생 기상정보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서 황사의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리라 다짐해봅니다.

강영숙 인천

기상청 직원분이 다녀왔다는 여행기 '꽃보다 부부, 스페인으로 가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떠난 외국으로의 여행이 무척 즐거워 보여서 글을 읽는 내내 훈훈했어요.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저에게 스페인의 '론다'는 신선한 여행처였습니다. 헤밍웨이처럼 저도 론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남이 부산

‘나무, 숲, 산을 보며 업무를 생각해보다’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만 일한다면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가치를 모르고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맹목적이고 교과서적으로 고지식하게 하면 안 되고 통합적이고 융합적이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엿보게 해주었습니다.

이갑수 장성

복합 기상센서를 탑재시킨 드론을 개발하게 되면 현재 관측이 제한적이었던 대기경계층 기상관측을 비롯해 방재, 산악, 농업, 해양 등 다양한 기상업무에 활용하게 될 수 있으리란 기대효과만으로도 하루빨리 개발에 성공하게 되기를 기다리게 되네요. 특히 대기 온실가스 연구 및 구름관측, 식생 관측, 미세먼지 제거 등 기상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이미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는 해외사례들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과 환경문제들의 해결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아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름의 목소리

꽃물결로 흐드러지던 봄이 지나고,
푸르름에 잔뜩 취해도 좋을 초여름,

나무 그늘 아래
목덜미에 흐르던 땀이 조용히 식어가는 소리

장난기 가득한 아이가
힘껏 밀던 자전거 페달처럼
쏟아지는 햇빛

두 볼 빨강게 익어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름이 오는 소리

글: 조아라
사진: 김택수, <쌍무지개>, 2015 기상기후사진전 장려



대한민국 상훈



2017 국민추천 포상



추천기간
2017년
6월 30일까지

포상시기
2017년 12월



현 숙 < 홍보대사 > 박수홍

어떤 사람을요?

-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 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쓰는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 따뜻한 가족에 또는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어떻게 추천해요?

- 인터넷**
www.sanghun.go.kr
모바일 (m.sanghun.go.kr)에서도 가능
- 전자메일**
sanghun114@korea.kr 후 추천서 송부

- 우편 또는 방문**
(우)03171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908호
추천서 서식은 국민추천포상 홈페이지 접수청구
(www.sanghun.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비치
단, 본인 추천 제외





제12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공모

기상정보를 기업(관)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기상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관) 또는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기상산업 신사업·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상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2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자격

기상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관) 및 개인

공모분야

I 기상정보 활용 부문

· 기상정보를 기업(관)경영에 활용하여 재해예방 및 경영을 혁신한 경우

II 기상산업 진흥 부문

· 기상·기후 분야의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우수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III 아이디어 제안 부문

· 기상산업 신규서비스 또는 신사업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등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4. 13.(목) ~ 8. 31.(목) 16: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mipa.or.kr) 참조

시상내역 총 15점(시상금 21백만원)

구분	등급	훈격	시상금
기상정보 활용	대상(1)	국무총리상	500만원
	금상(1)	환경부장관상	300만원
	은상(2)	기상청장상	각 100만원
	동상(2)	기상청장상	각 50만원
기상산업 진흥	환경부장관상(1)	환경부장관상	300만원
	기상청장상(2)	기상청장상	각 100만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상(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상	각 50만원
아이디어 제안	최우수(1)	기상청장상	200만원
	우수(1)	기상청장상	100만원
	장려(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상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육성실 Tel. 070-5003-5233